

보도자료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서울대 학
SEOUL NATIONAL UNIVER

배포일	2018. 8. 29.(수)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행사진행: 총무과 학위수여: 학사과	문의	총무과(880-5092) 학사과(880-5033)

서울대학교 제72회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는 제72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2018년 8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873명, 석사 1,058명, 박사 595명 총 2,526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 교육부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현대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고 강조하며 “현실 사회속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사유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며, 전문분야의 지식과 정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내적 성찰로써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지혜를 발휘할 것” 을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사 첨부1>

학위수여식 축사 연사는 신수정 총동창회장과 김호동 동양사학과 석좌교수가 맡았다. 신수정 총동창회장은 난관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김호동 석좌교수는 일상적 일에 대한 헌신적 실천과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적 성장 등을 각각 축사에서 강조하였다. <축사 자료 첨부2, 3>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온 박성태 학생(25, 경제학부, 선한인재 장학금 수혜)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았다. <대표 연설문 첨부4> 전체 학위수여식 행사 후 각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별로 학위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주요 식순

-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총장 직무대리), 축사(신수정 총동창회장), 졸업생 대표 연설(박성태, 경제학부), 축사(김호동 동양사학과 석좌교수), 학위수여, 상장수여, 교가제창

* 붙임

- 학위수여식사(총장 직무대리), 축사(신수정 총동창회장, 김호동 석좌교수), 졸업생 대표 연설문(경제학부 박성태)

【붙임1: 학위수여식사】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졸업생 여러분께 서울대학교 교직원을 대표해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학업 지도에 힘써주신 교수님들, 헌신적으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서울대학교 발전에 기여해 오신 동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졸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주신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움에 정진해온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가정, 학교, 사회는 모두 배움의 터전이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은 무한히 확장되어갑니다. 자신에 대한 앎의 노력은 사회와 세계, 그리고 우주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대학교육은 유달리 특별합니다. 다양한 학문영역을 탐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개인과 사회, 자연과 우주의 거대한 질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교육에서 모든 앎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대학에서의 배움을 통해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배움터이었던 서울대학교는 인류의 지적 자산을 전수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학문공동체입니다. 학문공동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영원한 질문들’을 탐구하고, 열린 자세와 깨어있는 성숙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객관화하고 시야를 넓히고자 단련하는 학문공동체는 상호 존중의 정신과 신뢰가 살아있는 ‘위대한 공동체’의 토대입니다. 여러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식을 탐구함과 동시에, 학문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전인적 인간으로 성숙해왔습니다.

미래를 개척해야 할 졸업생 여러분!

이제 졸업생 여러분 각자는 대학에서 습득한 자신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현대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책무

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복잡하게 얽힌 이익 갈등, 그리고 통제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에 의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응하여 사회적 성찰의 다양한 실천과 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폭되는 불확실성과 다변화되는 갈등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합의 도출의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현실 속에서 공동선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노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극단화의 경향에 의해 사회통합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명분상으로 공동선을 내세우고 통합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배제와 서열화의 경향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개인과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견과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때로는 관용할 줄 알며, 남득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통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거를 제시하는 토의와 서로를 존중하는 설득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합리적으로 중재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항상 견지되어야 합니다. 양자택일보다는 상호보완의 논리로 갈등을 이해하고, 흑백의 이분법을 넘어서 절충을 모색할 때, 비로소 사회통합과 난제해소가 가능하며 우리 사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는 대학 밖의 사회는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현실 사회 속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사유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대학에서 사회로 나서는 지성인 여러분은 전문 분야의 지식과 정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내적 성찰로써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성숙한 개인은 자신의 내면에 공론장을 만들어갑니다. ‘마음속 공론장’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으로서 도덕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나아가 자신과 상상의 타자 간에 대화가 펼쳐지는 포럼입니다. ‘마음속 공론장’에서 길러지는 ‘이해 능력’은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고, 남의 탓과 허물을 찾기 전에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아를 통해 반성하며, ‘상상력’을 키워 부분보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발전을 추구해갈 졸업생 여러분!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와 행한 첫 번째 연설에서 낙타에서 사자로, 이어서 아이로 거듭나는 자기극복을 통한 ‘새로운 탄생’ 을 역설합니다. 순종적인 낙타와 같이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진 진지한 정신의 소유자는 이내 고독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환멸과 투쟁을 통해 자신의 힘과 주체성을 획득하여 사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인간은 ‘새로운 시작과 즐거운 긍정’ 으로 상징되는 순수한 ‘아이’ 의 정신으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졸업생 여러분은 서울대학교에서의 배움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반추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를 통해 겪은 배움은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배움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승화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배움을 즐기고, 인간의 위대함을 실천하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으로 더욱 성숙하고 거듭나길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며, 또한 여러분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총장 직무대리 교육부총장 박 찬 욱

【붙임2: 축사1 총동창회장】

사랑하는 저의 후배, 자랑스런 서울대 졸업생 여러분.

영광스런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들을 정성으로 키우고 이끌어주신 학부모님과 모교 교수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난 4년 여러분의 숨결과 발길이 닿은 강의실과 교정의 아름다운 추억들은 오래토록 여러분과 동행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 관악에서 흘린 땀과 눈물, 망설임과 후회, 성취와 보람, 이들 역시 여러분 앞날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딛고 가야할 세상은 지금까지와 달리 낯설고 때로는 힘겹기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배들이 겪은 현실이었습니다. 동시에 원치 않지만 여러분의 미래 역시 순탄한 길과 가시밭길이 교대로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거나 지레 겁내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자랑스런 서울대 졸업생 여러분은 닥쳐올 난관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녔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3월초 어느 날, 아직 찬바람이 관악산을 타고 뿔뿔 불어오던 그 날, VERI TAS LUX MEA, ‘진리는 나의 빛’ 서울대를 향해 당당히,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걸어오던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여러분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이 순간부터 모교 즉 어머니학교가 됩니다. 괴롭고 힘들 때 찾아오는 아이를 외면하는 어미는 없습니다. 어미가 늙어 쇠잔해질 때 나 몰라라 하는 자식도 없습니다. 서울대와 동창회는 이제 엄마 품이 되어 여러분을 언제라도 따스하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사회, 아니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따스한 어머니 품이 되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님들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저의 축하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신수정

【붙임3: 축사2 김호동 석좌교수】

우리 시대의 ‘큰 바위 얼굴’ 을 위하여

김호동 석좌교수(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먼저 학부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맞게 되신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헌신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스승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2018년 후기졸업식의 축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처음에 학교 당국에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참 난감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축하의 말을 하고 어떤 용기와 격려를 해줄 수 있을지 심히 회의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사상 유례없는 청년실업률로 여러분의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을 테고, 국제적으로는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지구의 환경과 기후는 거의 재앙적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고삐 풀린 말처럼 누구도 통제하기 힘든 곳을 향해 질주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 21세기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축하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1972년도에 이곳에 입학한 이래 3년간의 군복무와 6년간의 해외유학 생활을 빼고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을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만 지냈으니 ‘정중지와(井中之蛙)’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쓰임새가 있다고 하듯이, 제가 그동안 살면서 또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 가운데 다소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저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자 조그만 영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의 화두는 ‘큰 바위 얼굴’ 입니다.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오돈의 동명 소설을 간략하게 줄여서 실은 것이지요. 아마 그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이야기가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 속에 남아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동북부의 한 대학으로 유학을 간 뒤 어느 해 여름방학 잠시 틈을 내어 뉴햄프셔에 있다는 그 소설의 현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 협곡을 돌아나와 차를 멈춰 세운 뒤 내려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절벽 윗부분에 정말 사람의 옆모습을 방불케 하는 바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저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계속된 폭풍우로 그 바위가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길고 긴 세월 속에서 풍상으로 깎여져 만들어졌을 그 큰 바위의 얼굴이 무너졌다니 참 믿기지 않는 허탈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큰 바위 얼굴’을 읽고 마음속으로 혹시 나도 그 주인공인 어니스트처럼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 물론 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야 가상하지만 얼마나 주제넘은 상상입니까. 물론 어린 저도 그걸 모를 리는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큰 바위 얼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중대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상과 현실은 맞닿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큰 이상의 실현은 작은 현실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트북’이라는 미국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자기 부인을 극진하게 사랑하며 보살피다가, 마침내 같은 날 침대대에 함께 누워 동시에 세상을 떠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가난한 젊은이와 부잣집 아가씨가 주위의 반대를 무릎 쓰고 불같이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평생을 사랑하며 살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그런 영화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얼마나 존재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구순이 되신 저의 부모님을 보면서 마치 그 영화가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치매에 걸린 저의 어머니와 그를 보살피며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을 보면 그 어떤 순애보보다 더 절절해 보입니다. 다만 차이는 우리 부모님의 젊은 날의 만남과 그 후의 결혼 생활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한 것도 불같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이룩하는 중요한 성취들은 많은 경우 처음부터 높은 이상을 세우고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감으로써 획득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성실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품었던 이상에 근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어니스트가 처음부터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이 되려고 꿈꾸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을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상적인 작은 일들을 평생 실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꿈과 이상을 품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동떨어진 이상만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구호도 있었지만 꿈도 꿈 나름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주의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현실주의자’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주위의 현실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치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과녁을 맞히려는 것과 같아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에서 이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길은 의외로 자기와 친숙한 것 혹은 가까운 곳에 있을 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신의 그러한 선택이 반드시 미래의 성공과 이상의 실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것에 전력을 투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분야를 선택했건간에 거기서 ‘전문가’ 즉 ‘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프로’란 다른 사람들은 못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맡기면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앞으로 최소한 10년 동안 오직 한 우물만을 파십시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눈에는 다른 ‘프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는 ‘프로’들끼리의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룩하는 성취와 성과는 더 이상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대의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축사를 마치면서 자기 시대의 큰 바위 얼굴이었던 사도 바울의 다음 한 구절로 마감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디모데 후서 4:7)” 여러분들도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길고 선한 싸움에서 부디 승리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4: 졸업생 대표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졸업생 대표 박성태입니다.

제72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박찬욱 교육부총장님,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 및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526명의 졸업생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모두 저마다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이겨내셨기에 졸업이라는 영예를 누리시고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난관을 열정과 노력으로 극복하고 값진 결실을 맺은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소에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니다. 저는 미혼이신 어머니 곁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친구 삼아 자라왔습니다. 출생의 아픔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느꼈던 저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때때로 저를 혹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유에 대한 의문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란 사실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밀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저만의 영역에 가두는 연습을 하며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종양 후유증으로 갑작스럽게 청력 장애를 가지시게 된 어머니의 실직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생계곤란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며 죽음을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세상과 더 이상 함께해야 할 이유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을 이겨내고 제 스스로를 바로 세우며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이 인생 최대이자 마지막 성공이라 생각하며 졸업은 제겐 남일 같이 느껴졌던 때를 돌이켜보니, 오늘 이 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음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의 영광은 좌절과 비관이 연속되던 시기에 건네받은 도움의 손길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의 지원을 제공해 주신 서울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은 생활비 걱정으로 학업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었던 제게 언제나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내·외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던 SNU in the World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제게 드넓은 세상을 만나고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낌없는 칭찬과 조언으로 언제나 믿음과 용기를 주신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너의 실력보다 가능성에 더 큰 믿음을 주고 싶다.’ 라는 한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매 학기 학과 사무실을 찾아 근로장학생과 장학금 신청을 할 때마다, 넉넉지 않은 저의 가정형편을 고려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교직원 선생님들의 친절과 미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주도적이면서도 배려심을 갖춘 ‘선한 인재’인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제게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기 위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영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을 꾸는 수많은 학우들은 제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덕분에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제 스스로가 가진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돌이켜보면 주위의 도움 없이 제가 이 자리에 당당히 서있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받은 도움을 통해 삶에 대한 희망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도움을 잊지 않고 조금씩 갚아나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짧지 않은 대학생활을 거치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떠올리며 감사와 환희로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인생의 황금기이자 결정적인 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정든 서울대학교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실 여러분의 앞날

에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모르게 희망을 잃고 주저앉을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도 약해질 것을 알기에 언제나 제 앞에선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셨던 것을 압니다. 이제는 무사히 사회에 발을 내딛은 저를 지켜보시며 그동안 짊어지셨던 짐들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제72회 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 대표 박 성 태